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 성료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10월 13일 르네상스호텔에서 한·중·일 관계자 150여 명 참석



▲ 환영사를 하고 있는 심호진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
제 활성화의 성공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공동으로 지난 10월 13일 오후 2시부터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어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수산물부 하영제 차관을 비롯하여 수협중앙회 이종구 회장, 한국수산업회 박재영 회장 등 관련 공무원, 단체, 어업인 등 150명 정도가 참석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에서 해양수산개발원 강중희 원장은 한·중·일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침체되어 있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이러한 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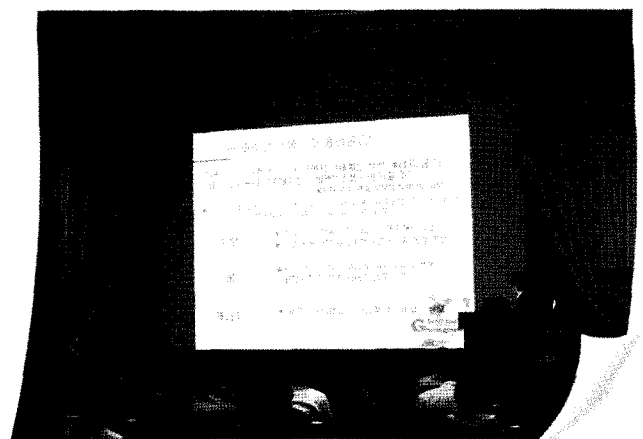
이어 한국어촌어항협회 심호진 회장은 환영사에서 어촌경제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민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레저·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의 조성을 통한 수산자원의 증대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림수산물부 하영제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녹색성장과 어촌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최근 국가정책 기조인 녹색성장과 어촌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기조연설에 이어 모두 5개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는데 먼저 일본에서 온 동경해양대학 해양과학부 료쇼하 교수 “일본 어촌경제의 과제와 새로운 정책 전개”와 수산종합연구센터 타마키 야스지 실장 “일본 어촌경제 활성화의 성공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상해해양대학 한싱용 교수의 “중국 어촌의 특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가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성애 연구위원 “한국 어촌경제 실태와 활성화 정책의 방향”, 한국어촌어항협회 송영택 팀장 “한국 어촌경

2부에서는 주제발표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루어졌다. 지정토론의 좌장으로서는 부경대학교 이주희 교수가 맡았고, 지정토론으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실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 한국수산업신문 남달성 주간, 지역농업네트워크 박영범 대표이사,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 한양대학교 최승담 교수, 농림수산물부 최완현 수산개발과장, 한국어촌어항협회 황철민 수산·문화연구센터장이 활발한 토론을 하였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한·중·일 각국의 어촌정책과 성공적인 사례들을 교류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진지한 토론을 함으로써 향후 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토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 의미가 있는 행사였고, 앞으로 우리나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한국어촌어항협회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더 경주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하영제 농림수산물부 차관